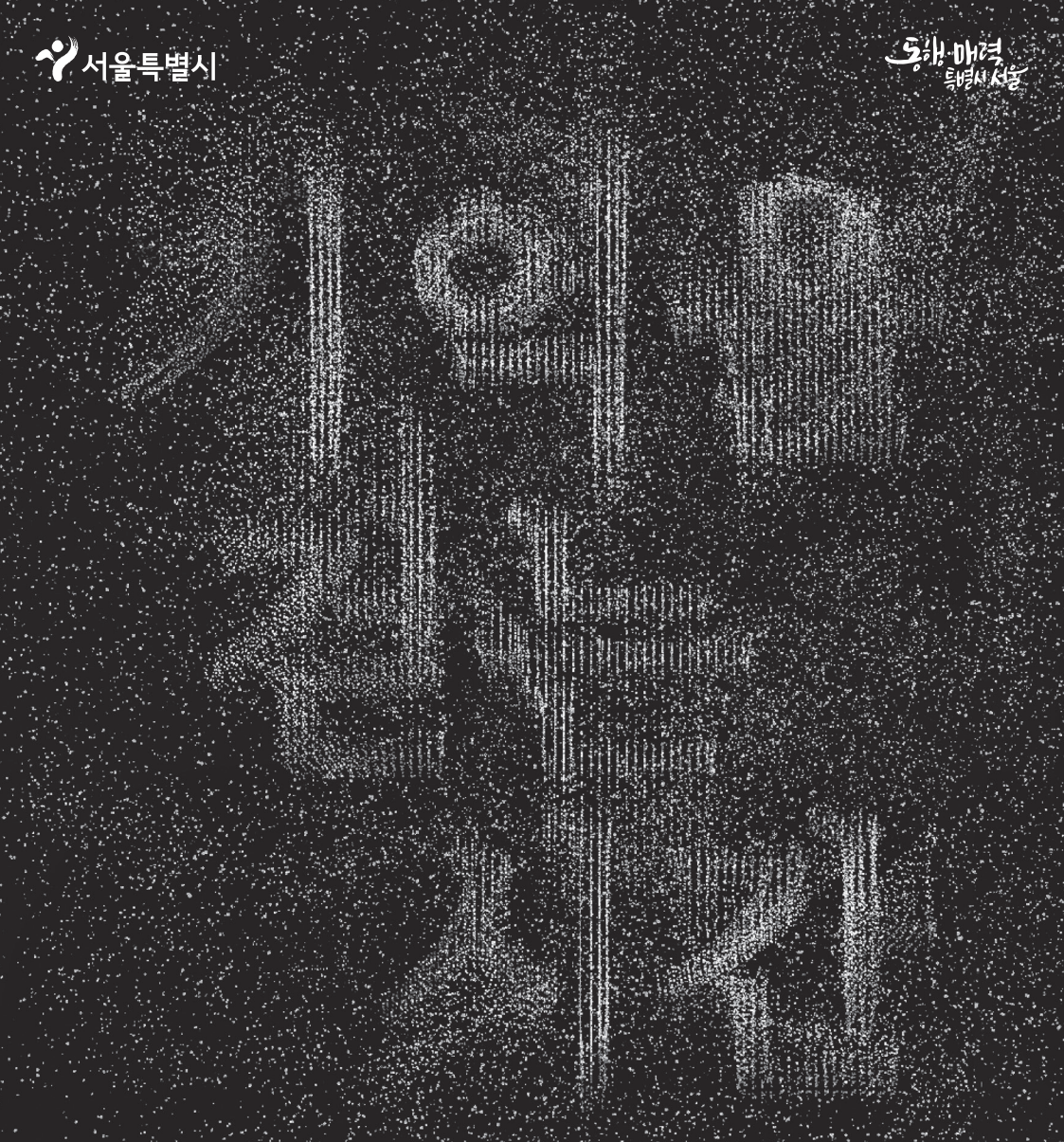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기억을 걷는 시간

Time walking on memory

2022.10.15.(토)–2023.1.29.(일) 10am – 6pm

문화비축기지 T5 월요일 휴무

Oil Tank Culture Park T5 Closed on Monday

1F영상미디어관 (동인천탐험단)

2F이야기관 (김미련, 이성민)

문화비축기지

전시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 공감 혹은 비판의 지점 형성, 결국 진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일련의 추체험을 통해서 다시금 상황을 복기하고 상기하는 일이다.

이 전시는 자발적인 질문 속에 누군가 자리했던 장소 혹은 보편적 생활공간으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활동에 주목한다.

김미련 작가는 대구경북 지역의 매카시즘에 대한 오랜 탐구를 지속해왔다.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가족사의 비극적 장면들을 상기하면서 그로부터 한국의 분단현실에 대한 성찰을 메시지화 한다. 또한 대구 동인아파트 재개발 광풍 속에서 그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적 공감을 로컬 포스트 콜렉티브를 이끌며 예술행위로 실천해왔다.

재개발이 한창인 개포동주공1단지에서 과거 유년기를 보낸 이성민 작가는 아파트의 시간만큼 함께 자리했던 나무들, 경제적 논리로 폐기처분에 이르는 나무들을 삶의 터전, 추억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과 동일시하며 그 사이를 걷고 기억을 공유하며 연대적 공감을 얻는 나무산책을 실천해왔다.

인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동인천탐험단은 근대화, 산업화의 흔적으로서 여전히도 켜켜히 삶의 장소 혹은 처연한 흔적으로 자리하는 장소들을 찾아 함께 걷고 토론하며 건축,사회, 역사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이를 창작활동으로 실천해왔다.

자본이 주조한 획일적이고 화석화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새로운 '상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 디보르(1931-1994)와 상황주의자들은 연대적 실천으로 표류와 전용,우회 등의 전술로서 도시를 걷고 가르며 표류하는 퍼포먼스를 제안하고 실천한 바 있다.

이 전시에서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새로운 상황을 주조하며,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예술가들의 작업을 소개한다. 몸소 걷고 함께 산책하고 또한 이미 흔적과 여정을 추체험하는 방식은 능동적일 뿐 아니라 자신을 넘어 사회와 역사, 삶의 본연적 질문에 다가가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About the exhibition

The course of understanding, empathizing or forming a point of criticism and, ultimately, acquiring sincerity is the process of revisiting and remembering situations through a series of recollections.

In the midst of voluntary questions, this exhibition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artists who view cities as either places where someone once was or universal living spaces.

Artist Miryeon Kim has long explored McCarthyism in the Daegu-Gyeongbuk region. By remembering the tragic scenes from her own family history in the whirlwind of the Korean War, she reflects on the subsequent division of Korea and turns it into a message. She has also carried out artistic activities in the midst of the redevelopment craze of Dongin Apartment in Daegu by leading empathetic solidarity of the residents through a local post collective.

Artist Sungmin Lee who spent his childhood in Gaepo-dong Jugong Apt. 1danji, which is in the midst of redevelopment, not only equates the trees that have been standing for as long as the apartment but have been cut down and discarded for economic reasons with our homes and lives from which memories are disappearing, but also practices walks among trees while sharing the memories and attaining empathetic solidarity.

Dongincheon Explorer, primarily active in the Incheon region, visits places that hold traces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still remain today as the tragic evidence or scenes of life with many layers, to walk among them and engage in conversations together while collecting architectural, social and historical evidence to research the identity of cities and to practice it through creative activities.

Guy Debord (1931-1994) and situationists who insisted that that we ourselves need to form new “situations” in order to escape from uniform and fossilized lives cast by capitalism once proposed and carried out a performance of walking and wandering through cities as tactics of the practice of solidarity, which include wandering, exclusiveness and detour.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e works of artists who cast new situations while going beyond their mere understanding and, also, deal with the journey of finding solutions to questions. This method of lived experience in which you actually walk and encounter traces and journeys is not only proactive but also presents us with the methodology of going beyond who we are and approach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society, history and life.

1F 영상미디어관 동인천탐험단

김수환, 고경표, 노기훈, 백인태, 이의중, 오석근, 카마다 유스케
Instagram.com/dongincheon_explorer

❶ **[도면]** 신흥동, 산곡동 영단주택 집 관련 도면 6점 (이의중)
[드로잉] 신흥동, 산곡동 영단주택 집 드로잉 : 펜 드로잉 후 아크릴에 프린트 9점 (김수환)
[사진] 신흥동, 산곡동의 집 외부, 내부 기록물 (오석근, 노기훈)
[사진] 신흥동, 산곡동 항공사진 (노기훈)
[도서] 신흥동 일곱주택
- 주민 인터뷰_녹취록 3~4개 (고경표)
- 답사 녹취록 : 전문가 답사 녹취록 6개 (고경표)
- 동네 관련 원고 : 6개 (도미이 마사노리, 김현석, 배성수, 손민환)

[유물] 집에서 발견한 상량문
[영상: 연구자료 스크리닝] 옛지도, 옛사진, 신흥동 관련 신문기사, 과거 항공사진, 동네사진 : 도미이 마사노리 선생님의 80년대 산곡동 사진 + 2020년의 오석근이 같은 위치를 찾아 촬영한 산곡동 사진 등 (고경표, 오석근, 이의중, 도미이 마사노리)
[사진작품] <적산敵産> 연작 사진 3점, 2018 (오석근)
[영상작품] <Japanese House(일본 집)> 단채널비디오, 12분50초, 2022(카마다 유스케)

'동인천탐험단'은 사진작가 오석근과 건축가 이의중이 각각 인천 구도심 투어를 진행했던 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그간 역사적으로만 조명되어 왔던 도시와 건축물의 숨겨진 단면들을 건축가,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읽어내고자 했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신흥동의 일본식 가옥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신흥동 일곱 주택(2019~2020)』을 통해 주목받았다.

신흥동 프로젝트에는 오석근과 이의중 외 사진작가 노기훈, 시각예술가 김수환, 카마다 유스케, 큐레이터 고경표가 참여했으며 이어지는 산곡동 프로젝트(2020~2022)에는 기존 구성원과 더불어 시각예술가 백인태가 참여하였다.

'동인천탐험단'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와 공간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엮어지는 역사, 사회, 문화적 사실들의 긴 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 선이 이어지는 순간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했는데 일본 건축의 보고(寶庫)인 건축가 도미이 마사노리(冨井正憲), 인천시립박물관의 배성수, 부평역사박물관의 손민환 등이 그동안 동인천탐험단과 따로, 또 같이 도시를 톺아보았던 이들이다.

'동인천탐험단'은 어떤 정의로 고정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는 집단이다. 이들은 매우 유연한 시각으로 도시와 건축, 사회, 문화를 가능한 데까지 살펴보고, 다양한 이들과 협업하며, 각자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흥동 일곱 주택(2019~2020)』이 바로 그 첫 번째 결과물로 이는 도시연구나 아카이브라는 명명보다는 문화 예술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한 하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1F Projection Hall Dongincheon Explorer

Kim Soohwan, Ko Kyungpyo, Gihun Noh, Beck Intae, Lee Euijung, Oh Suk Kuhn, Yusuke Kamata

❶ **[Drawing]** Six drawings related to Yeongdan houses in Sinheung-dong and Sangok-dong (Lee Euijung)
[Drawing] Drawing of Yeongdan houses in Sinheung-dong and Sangok-dong: Nine acrylic prints after pen drawing (Kim Soohwan)
[Photo] Exterior and interior records of houses in Sinheung-dong and Sangok-dong (Oh Suk Kuhn, Gihun Noh)
[Photo] Aerial photos of Sinheung-dong and Sangok-dong (Gihun Noh)
[Book] Seven houses of Sinheung-dong
- Resident interviews_Three to four recorded tapes (Ko Kyungpyo)
- Recorded tapes from visits: Six recorded tapes from experts' visits (Ko Kyungpyo)
- Manuscripts related to the neighborhood: Six (Masanori Tomii, Kim Hyeonseok, Bae Seongsu, Son Minhwan)

[Relic] Sangnyangmun papers discovered in a house
[Video: Research material screening] Old maps, old photos,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Sinheung-dong, old aerial photos, Neighborhood photos: Photos of Sangok-dong from the 80s taken by Masanori Tomii + Photos of the same locations in Sangok-dong taken by Oh Suk Kuhn in 2020, etc. (Ko Kyungpyo, Oh Suk Kuhn, Lee Euijung, Masanori Tomii)
[Photo Work] Three serial photographic works, Jeoksan, 2018 (Oh Suk Kuhn)
[Video Work] Japanese House, single channel video, 12 minutes 50 seconds, 2022 (Yusuke Kamata)

"Dongincheon Explorer" began when photographer Oh Suk Kuhn and architect Lee Euijung merged their respective Incheon old city center tours. They aimed to read the hidden aspects of cities and structures, which had only been highlighted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with the eyes of an architect and a photographer, and came to the fore through Seven Houses of Sinheung-dong (2019-2020), which recorded Japanese houses in the Sinheung-dong area set to be redeveloped soon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o Oh Suk Kuhn and Lee Euijung, photographer Gihun Noh, visual artists Kim Soohwan and Yusuke Kamata, and curator Ko Kyungpyo participated in the Sinheung-dong Project, and, in the Sangok-dong Project (2020-2022) that followed, Beck Intae, another visual artist, joined the previous members.

"Dongincheon Explorer" pays attention to the city and spaces they live in and connects a long line of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facts compiled from them. Also, they collaborated with various experts at every stage when this line became further connected, including great Japanese architect Masanori Tomii, Bae Seongsu from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and Son Minhwan from Bupyeong History Museum. All of them have meticulously searched and examined the city by themselves and, also, together with the Dongincheon Explorer.

"Dongincheon Explorer" is a group that cannot be fixed or defined by any single definition because they study cities, architecture, society and culture as much as they can with an extremely flexible perspective, collaborate with a variety of people and freely express what they respectively think and believe. 『Seven Houses of Sinheung-dong (2019-2020)』 showcased at this exhibit is their first-ever showing and, rather than being called urban research or archives, it is a demonstration of the abilities of those work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the very places they live.

❷ **우리가. 있는 곳에. 나무가.**
2021/ 실험다큐멘터리 / 3채널 비디오 / 21분
개포주공아파트에서 살아온 사람, 나무, 집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우리는 세 개의 시간을 통해 '그곳'을 기억한다

❸ **다시 말하는 이름 (2018)**
❹ **다시 부르는 이름 (2019)**
개포동 나무로 만든 액자, 프린트

❺ **여전히 그곳에 없는 (2016)**
연작 2점, 흑백, 피그먼트 프린트, 75x50cm

❻ **두 번째 계절 (2017)**
연작 2점, 개포주공1단지 나무기둥, 컬러, 피그먼트 프린트, 75x50cm

❼ **닿지 않는 말 (2016)**
연작 2점, 컬러, 피그먼트 프린트, 75x50cm

80년대 지어진 개포주공 1단지는 5,040세대 수의 대단지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고, 또한 약 39개 수종, 6만 그루의 이상의 나무숲은 그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40년 이상 된 나무들은 거의 폐목처리가 되는데, 이는 이식비용은 물론 거목으로 자란 나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은 경제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 소식을 마주하며 개포주공 1단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작가는 재건축되는 아파트와는 별개로 나무를 매개로 놀고 자랐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소환하였다.

그렇게 〈개포동 그곳〉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작가는 온라인으로 '개포동 그곳'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재건축 단지에서 사라져가는 나무를 기록한 사진을 공유하고 계정의 내용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개포주공 1단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키즈'로서 유년시절의 삶으로부터 개포주공 1단지, 사라져가는 나무를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정서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작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무산책을 하면서 공간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모으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해나갔다.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
작가는 사람들을 다시 그 장소로 오게 하여,
함께 산책하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곧 사라지게 될 이름을 불렀다.

이 과정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사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고, 나무 보존에 관한 의견들도 나누게 되었다. 작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고, 현재도 그 나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작가의 질문이 어느덧 '공감'의 시선을 모으고, '연대'의 목소리로 확장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억을
걷는
시간

❷ **Tree. Where. We are.**
2021 / Experimental documentary / 3channel video / 21 minutes
The times of people, trees and houses of Gaepo Jugong Apt. flow differently.
Through the three different times, we remember "the place."

❸ **Retelling the name (2018)**
❹ **Name what calling again (2019)**
A frame made of a tree in Gaepo-dong, print

❺ **Still Not There (2016)**
2pieces, Black-and-white, pigment print, 75x50cm

❻ **Second Season (2017)**
2pieces, Tree column from Gaepo Jugong Apt. 1danji, color, pigment print, 75x50cm

❼ **Words Not Reached (2016)**
2pieces, color, pigment print, 75x50cm

Gaepo Jugong Apt. 1danji, built in the 80s as an enormous complex housing 5,040 households, has been the home of numerous people, and its forest of over 60,000 trees of some 39 different species has served as a pleasant resting spot for the residents. As redevelopment proceeded, nearly all the trees over 40 years old were discarded, a decision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huge costs in replanting and the fact that the huge, established trees were believed to be difficult to successfully take root in a new environment.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decision was based on economic reasons.
Upon facing this news, the artist who had spent his childhood in Gaepo Jugong Apt. 1danji summoned the memories from the days when he had played with the trees, apart from the houses being reconstructed.

This is how the 〈Gaepo-dong the Place〉 project came to life.

The artist created an online account named "Gaepo-dong the Place" to share photos of trees disappearing from the apartment complex being reconstructed and to converse with those who come to check out the contents of the account. Those who remember Gaepo Jugong Apt. 1danji deeply empathize with the notion that the disappearing trees of the complex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lives of their childhoods as "apartment kids." Thus, as he took walks through the trees with others, the artist collected memories of the space and the trees and formed emotional solidarity.

Before reconstruction began,
the artist had people return to the place once again
to walk together and talk about memories
while calling the name that would soon disappear.

This process continued for two years, over the course of which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areas came together to share their opinions on the preservation of trees. The artist is currently producing a documentary film that covers all of the events having taken place over this entire process and also continuously tracks the whereabouts of the trees.
The works being introduced here show how the artist's questions were able to gather the eyes of "empathy" and expand as the voice of "solidarity."

Time
walking on
memory

❽ 안개의 그림자
2022/ VR 3D 영상설치 / 4분 (공동창작 손영득)

분단의 기억이 정치적·심리적·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작용하는가에 대해 작가는 그의 가족이 지닌 서사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이야기를 구축해나간다.
남동생의 안전을 위해 북으로 월북한 할아버지에게는 어린 자식과 아내가 있었다. 그 어린 자식이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가진 기억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정서적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인터뷰할 당시, 작가는 아버지가 지닌 정치적 무의식(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과 심리적 요소(원망, 소망)들을 복합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작가는 아버지가 증언한 그 기억과 장면, 그리고 흔적들을 3D로 구현하고 가상세계를 구현하였다. 이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타인의 경험/기억을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추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작가는 근현대사 속에서 특히 아버지 세대의 정치적 무의식 속에 대구경북 지역의 빨갱이 메카시와 마녀사냥 등 극단적 애국보수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추적한다. 기억 속에 파편화된 이미지로 부유하는 사물과 유기물들은 전쟁 이후 이념에 대한 트라우마와 또한 희망을 갈구하는 정서가 부딪치는 상징물과도 같다. 가상공간을 탐험하는 관람객은 누군가의 불안정한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인간적 공감을 느끼거나 혹은 양가적 정서 내지는 인간의 경험과 비극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❾ 풍경의 좌표
풍경의 좌표 I_36.534,128.856
풍경의 좌표 II_35.620,129.002
풍경의 좌표 III_36.514,128.486
풍경의 좌표 IV_37.365,128.055
풍경의 좌표 V_38.108,128.380
풍경의 좌표 VI_38.152,128.105
2022/ 스캐노그래피, 컬러프린트 / 101x145cm

"(…)우리 할배는 독립유공자도 아니고 독립운동인명사전에도 없는 무명인물이신 것 같다. 수많은 무명활동가, 역사에서 휘발되는 운동가 중 한 명이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집안 자손을 힘들게 했던 그분의 동선이 궁금해서 안동 내앞마을에서 인제 서하리 DMZ, 인제 대암산 용늪(북방식물과 남방식물이 만나는 곳, 남한에서 유일하게 북방식물을 볼 수 있는곳)까지 식물좌표를 그려보기로 했다. 그의 안동 내앞 은신처에서부터 울산 가지산 칠곡 팔공산 보현 일월 형제봉 태백산, 설악 금강안동 그 너메까지(…)"

❽ Shadow of Fog
2022 / VR 3D video installation / 4 minutes (collaborated with Artist SON Youngdeuk)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the narrative of her family and builds a story from how memories of division affect individuals and groups politically, psychologically and subconsciously.
Her grandfather who defected to North Korea for the safety of his younger brother had a wife and a little child. The memory that her father, who was that little child, had on her grandfather was inevitably subjective and emotional and, when interviewing her father, the artist was able to get a glimpse into his political unconsciousness (fear of ideology) and psychological elements (resentment, hope) at the same time.
The artist turned the memories and scenes attested by her father as well as their traces into a 3D virtual world. This is designed for the audience to engage in a relived experience of another person's memories and events through his or her voice.

The artist searches for the origin of extreme patriotic conservatism including McCarthyism and witch-hunts in the Daegu-Gyeongbuk region in the political unconsciousness of her parents' generation over the course of modern history. Objects and matter floating as fragmented images in our memories are like the symbols in which the post-war trauma of ideologies and hope-seeking sentiments collide. The audience exploring the virtual space will be able to either feel human empathy from someone else's unstable world of unconsciousness or have new questions about ambivalent sentiments or experiences and the tragedy of humans.

❾ Coordinates of Landscape
Coordinates of Landscape I_36.534,128.856
Coordinates of Landscape II_35.620,129.002
Coordinates of Landscape III_36.514,128.486
Coordinates of Landscape IV_37.365,128.055
Coordinates of Landscape V_38.108,128.38
Coordinates of Landscape VI_38.152,128.105
2022 / Scanography, color print / 101x145cm

"(...)My grandpa is not an independence patriot but is an unknown person who is not even listed in the Biographical Dictiona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Perhaps, he is one of the countless unnamed activists and patriots who evaporate into history. Anyhow, I became curious of the movement of my grandpa who made things difficult for his descendants so I decided to draw plant coordinates from Naeap Village in Andong to the DMZ in Seoha-ri and Yongneup Marsh on Daeamsan Mountain in Inje (where northern and southern plants meet and the only place in South Korea to find northern plants). From his hideout in Naeap, Andong to Gajisan Mountain in Ulsan, Palgongsan Mountain in Chilgok, Bohyeon Irwol Hyeongjebong Peak, Taebaeksan Mountain, Seorak Geumgang Andong and beyond(...)"

⓫ 이사의 기술
2022/ 다큐멘터리 / 단채널영상/ 24분

재개발이 확정된 대구 시내 동인아파트의 삶과 이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았다. 코로나가 발발한 시기에 이사할 곳을 못찾아 애를 먹는 아파트 노인의 이주 분투기를 통해 한국 아파트의 역사, 노인문제, 재개발의 이면을 이야기한다.

⓬ 나의 살던 고향은 /대구 메가폰 슈프레히콜
2019/ 단채널영상 / 21분10초
('도도연극과 교육연구소' 기획 및 연출)

'나의 살던 고향은'은 동인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이슈들,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철거되면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의 아파트 주민의 문제를 다루었다. 블랙 슈트와 핑크 타이즈를 착용하고 커다란 메가폰을 잡고 그들이 외친다.
"집은 인권이다!"

※ 슈프레히콜(Sprechchor)은 독일어 말하다(Sprechen)과 합창(Chor)의 합성어로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에 한국으로 전파된 집회, 시위 형식의 전위연극이다. 거리나 공적 공간에 개입하여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현안을 예술적으로 다루는 집단 시위 예술형식으로 최근 현대예술의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⓫ Art of Moving
2022 / Documentary / Single channel video / 24 minutes

The life and moving story of Dongin Apt. in downtown Daegu set for redevelopment are told through a documentary. It shows how difficult it is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apartment complex to find homes to move t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us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apartments in Korea, issues surrounding senior citizens and the hidden side of redevelopment.

⓬ Hometown I Once Lived / Daegu Megaphone Sprechchor
2019 / Single channel video / 21 minutes 10 seconds
(Planned and directed by 'DodoTheater and Education Institute')

Hometown I Once Lived talks about various political issues surrounding the redevelopment of Dongin Apt. as well as the fate of the apartment residents who will never b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town once their homes are torn down for the profits of developers. In black suits and pink tights, they cry out through huge megaphones.
"Home is human rights!"

※ Sprechchor, a combination of "Sprechen," a German word that means to speak, and "Chor," which means chorus, is a type of alternative theater in the form of a rally and a protest that first began in early 20th-century Germany before spreading to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is a form of rally and protest art that intervenes in streets and public spaces and deals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agenda of a region in an artistic manner, and has been attracting more and more attentio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art.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1F 영상미디어관

동인천 탐험단 Dongincheon Explorer

❶ 인천 중구 '신흥동 일곱주택' (2019-2020)
인천 부평구 '산곡동프로젝트' (2020-2022)
-도면, 사진, 영상, 도서, 리서치, 연구 등 설치

2F 이야기관 (좌)

이성민 Sungmi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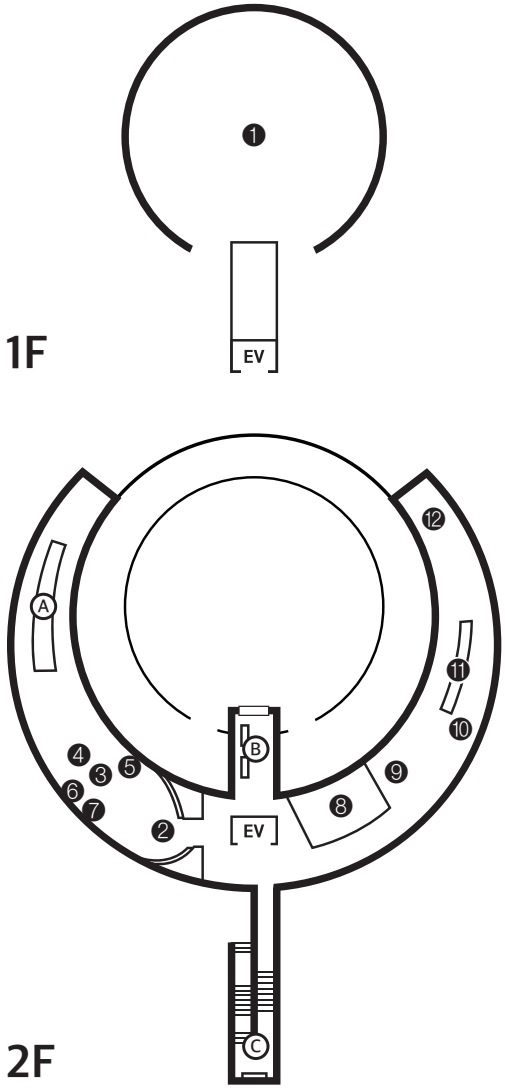
❷ 우리가. 있는 곳에. 나무가.
❸ 다시 말하는 이름
❹ 다시 말하는 이름
❺ 여전히 그곳에 없는
❻ 두 번째 계절
❼ 닿지 않는 말

2F 이야기관 (우)

김미련 Miryeon Kim

❽ 안개의 그림자
❾ 이사의 기술
❿ 풍경의 좌표
⓫ 아카이브
⓬ 나의 살던 고향은

Ⓐ 라이브러리
Ⓑ 이야기관 디지털 아카이브
Ⓒ 로와정 〈드롭 Drop〉, 공간가변설치



전시문의	대표전화 02-376-8410 blog.naver.com/culturetank
주최 주관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시각디자인	포인트투라인
전시테크니션	전기수, 안재석
전시코디네이터	박지예, 김소은
전시기획	최윤정 (문화기획팀 전시담당주무관)

Inquiries	02-376-8410 blog.naver.com/culturetank
Host Organizer	Oil Tank Culture Par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Visual Design	Point to Line
Exhibition technician	JUN Gisu, AN Jaeseuk
Exhibition coordinator	PARK Jiye, KIM Soeun
Exhibition Planning	CHOI Yoonjung Curator of Oil Tank Culture Park